



<b>수신</b>	각 언론사 기자, 이주단체
<b>발신</b>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b>제목</b>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b>날짜</b>	2019. 11. 19. (총 2매)

##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또 다시 일어난 이주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11월 16일(토) 경기도 양주시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인 한국인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의 고향인 전북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결혼 기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이주여성은 한국에 온지 3개월 만에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고, 결국 암매장으로 끔찍하게 삶을 마무리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당장 지난여름에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동영상 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처럼 이주여성이 사망에 이르도록 폭력을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2007년 후인마이라는 19세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입국한지 2개월 만에 46세 한국인 남편에게 맞아서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주여성이 겪는 극단적인 폭력을 드러내는 첫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2심 재판부는 가해 남편에게 12년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노총각 결혼 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남녀를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

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이란 허울 속에 갇혀 우리 내면에 있는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이주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남편의 책임만이 아니라 상업적 국제결혼을 가능하게 한 한국사회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이주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어졌다. 후인마이 사망 사건으로 12년이 지나는데도 이주여성들이 살해당하는 현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뿐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변화된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여성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가정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존엄한 존재로서 이주여성이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 11월 19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